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지역업체 참여율 28.7% '저조'

과학기술진흥원 시간외수당 올해만 18명에 1억원 부당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2년간 법규 위반만 80건 넘어 안전 '빨간불'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광주시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낮은 지역업체 참여율과 광주시 출연 기관의 시간외수당 부당 지급 등이 지적됐다.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이 9일 광주도시철도건

설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체 6개 공구와 차량기지 발주 공사(5억원 이상)의 계약 금액은 총 4879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의 계약 금액은 1402억원(28.7%), 다른 지역업체는 3477억원(71.3%)인 것으로 확인됐다. 1공구의 지역업체 비율은 25%, 2공구 29%, 3공구 26%, 4공구 31%, 5공구 29%, 6공구 26%에 불과했다.

유촌동에 짓는 차량기지는 지역업체 비율이

5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자체가 입찰·계약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관련 조례(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 생산 건설자재와 장비를 사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익주 의원은 행정사무를 통해 광주시 출연 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이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진흥원 직원 18명이 시간외수당 9924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8년 14명에게 1억원, 2019년 19명에게 1억1천65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일부 직원은 최고 월 139만원, 연 1632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광주시는 부당 수령액을 반납하도록 했으며, 현재까지 8명이 2800만원을 반납했다. 진흥원은 사전 결재 후 사후 승인 없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으며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2019년 8월)했으나 운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이경호 의원은 이날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여전히 불안하다"면서 "어린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통학버스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광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8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로는 ▲차량 안전장치 미설치 및 고장 72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미부착 6건 ▲운전자 교육필증 미비 4건이 확인됐다. 이밖에 일별·월별 안전점검 소홀,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부실운영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농업이 희망입니다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9일 오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도의회 의장, 정임수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장,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전남농업이 대한민국 희망입니다'라는 퍼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대표 3차 공모 2명 압축

광주시가 광주 문화재단 대표를 2명으로 압축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모에 지원한 13명 중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수, 언론인 출신 등 2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시는 두 차례 적격자를 찾지 못해 세 번째 이뤄진 공모인 만큼 추천 대상 중 1명을 임명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문화 수도 광주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인물을 영입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모시지 못했다"며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추천된 인사의 적격성을 검증해 (최종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 인사 청문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위 관료 출신, 문화예술 기획가 등과 접촉해 지원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18년 전남 49개 지역 축제에 355억 투입, 수익은 37억 불과"

김용호 도의원 지적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시급

지난 2018년 전남지역 49개 축제에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 사업비 355억원이 투입됐으나, 수익은 달랑 3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을 찾는 관광객 소비 확대를 위해 축제 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용호 전남도의원(강진2)이 배포한 전남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행사·축제 49건의 총원가(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포함 투입 비용)는 355억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수익은 비용대비 10분의 1 수준인 37억9400만원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축제·행사의 경우 다른 투

자사업과 달리 대부분 소모성 경비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원 낭비 방지를 위해 집행액 기준 광역자치단체 5억원, 기초단체 3억원 이상의 행사·축제에 대해 원가회계 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투입하는 사업비 대비 수익이 현저하게 저조하다"며 "관광객이 전남에서 즐기고 지갑을 열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체험 거리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류형 관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코로나 19로 취소된 축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는 축제 행사 프로그램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차별화된 축제 계획을 세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로컬푸드 지수 평가' 나주시 최우수 지자체

공공급식 확대·농가 소득증대 기여 장성군은 우수 지자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나주시가 최우수 지자체, 장성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로컬푸드 지수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지자체에서 이뤄진 로컬푸드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지원키 위해 올해 첫 시행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나주시는 공공급식 부문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로컬푸드 공급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전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10곳에서 지역 농산물을 월 400만 원 정도만 구입했지만, 협약 후 지역농산물 공급량이 공공기관 15곳, 월 5천 300

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장성군은 최근 푸드플랜 연계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로컬푸드 직매장에 투자하는 등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에 힘쓰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전남에서 유일하게 비 접경지역 군부대 급식 로컬푸드 확대공급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장성 상무대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군급식 로컬푸드 납품 비율이 2018년 27%에 불과했지만 올해 50%로 늘었고 2022년 7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이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방만 운영' 광주그린카진흥원 외부 용역으로 조직 진단

광주시가 '방만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진흥원 전체 조직에 대한 진단을 위해 외부 용역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또 인공지능산업국(자동차산업과)에서 적발된 '방만 운영' 문제에 대해 진흥원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솔방망이 처벌'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떠나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강도 높게 점검했다"면서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점검 내용과 감사 내용을 종합해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산업과가 그린카진흥원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인사, 회계 등 문제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진흥원과 시 감사위가 일부만 경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료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